

제목: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그리스도, 예수

본문: 행 5:33-42

시작찬송가: 524(통313), 544(통434), 430(통456)

헌금찬송가: 543(통342), 436(통493), 413(통47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30-31)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회개는커녕 오히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려 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33)

사도들을 없애려는 공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사도들을 구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34)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22:3)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38-39) 가말리엘의 이 말을 옳게 여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 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41) 채찍질을 당하는 것, 능욕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42)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31)는 사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42)라는 사상, 이 사상이 사람의 것이었다면 채찍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거듭되는 체포와 박해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금과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더욱 흥왕하여져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 임금이십니다.

1. 거짓 <메시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38-39)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바리새인 출신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고 알려진 사람의 예를 듭니다. <드다>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전했던 사람인데, 한때 사백여 명의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모두가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36) <메시아>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는 로마제국이 임명한 총독이 세금징수를 위해 호적등록을 실시했을 때(37)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유대 백성을 선동한 야심가입니다. 한 때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으나 그 추종자들 역시 그가 죽자 다 “흩어졌습니다.”(37) 참 <메시아>라면 역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예로 든 사례들을 통해 그가 말한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과 소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자칭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람들이었기에 다 실패했다는 말을 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적셔 바르는 것을 일컫는 *xv;m* <마샤흐>라는 동사를 뿌리로 한 단어인데,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왕’을 의미합니다. 왕의 궁극적인 임명자, 기름을 발라 왕으로 삼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는 영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말리엘은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2. 예수님이 바로 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42)

베드로와 사도들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31)고 말하였다가 공회원들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33)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42)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에, 참 <메시아>이기, <예수>라는 이름과 그분의 왕으로서의 지위는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기에!

히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3. 그리스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은 사도들이 채찍질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채찍질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dei, rantej*(<데이란테스>; 기본형은 *de, rw*<데로>)는 원래 가축을 빗기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실제로 끝에 쇠못이나 동물의 뼈를 달아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에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다쳐 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의 경우는 기둥에 묶어 놓고서 채찍질을 하였는데, 것처럼 가혹한 행위였기에 로마시민에게 채찍질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6:37은 그런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사도들은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고 그들의 그 인내와 희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커가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번 수요일은(3월 9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합니다. 옛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그리스도>
피터 폴 루벤스 (1577-1640)
성 바울 교회 소장품 (벨기에 안트베르프)

오늘의 한마디 :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뻐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2.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구제역을 그치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4.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명성교회